

우리 나라 服飾과 西域服飾간의 共通性에 關한 研究

- 三國時代, 統一新羅時代를 中心으로 -

全枳垠* · 沈和珍

誠信女子大學校 衣類學科 碩士*, 誠信女子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the Common Features of Western Clothing Style and the Style of Korean clothing

- Focusing on the Three Kingdom and Unified Shilla era -

Jee Eun Jeun* and Hwa Jin Shim

MA.,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looks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compares the clothing styles between the Three Kingdom to the Unified Shilla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what common themes exists between the foundation of Korean clothing and how it has evolved and through see to what extent the Chinese influence has been to Korean clothing culture. Also by explaining the originality and creativity of Korean clothing, we will be able to make clear the status of Korean culture.

Thes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1. The Korean strait line Gik-ryong Kyo-im can also be found at the Gochang region in the west.
2. The Ban-ryong-ui, worn by the aristocrats of the Three kingdom and Unified Shilla era, began to appear from the nobles from the Nam-Buk cho(South-north era). This combined with a Bok-du(headwear) became a part of casual dress wear.
3. Go(pants) became a traditional part of clothing for Unified Shilla and the west.
4. Ban-bi and Bae-dang, all forms of Bansu-ui (short sleeve), came from Chinas Kucha and Hotan and came to Korea.
5. Chinas Pae-baek and Pae-za (Shawl) which is the same as Unified Shillas Peo was also to be found to have come from the west.
6. The way a different color line was added to clothing both can be found in Korean and western clothing.

Similarities to material used are;

First, expensive wool was used and mostly originated from the west. From far away Rome came the O-saek-gae (Five-color wool).

Secondly, Kong-gak me (peacock feather) and Bi-chi mo were all originated from the west.

Third, Sil-sil is stated in the Sam-kuk Sa-ki (Three Kingdom records) as being prohibited to be worn by Jin-gol women (Highest nobility during Shilla era) as headwear or comb (pin) or as a comb(pin) for yuk-

doo poom (6th class nobility) women. Suggesting that it existed and other sources tell us that it came from Tashkent region of Russia and was a jewelry of some sort.

From what we have seen above, we can see the similarities between Korean and western clothing cultures and that these interactions not only occurred with China but with many other nations. We can see that our ancestors were creative and original that when importing foreign cultures that they transformed them into a Korean style. That these foreign cultures were transformed into our own style is good evidence to these facts.

I. 서론

서로 다른 문화간에 어떤 공통요소가 존재함을 논하게 되는 것은 문화 본연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문화는 같은 환경이나 여건에서는 물론, 때로는 다른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내용과 형태에서 유사한 것으로 창조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보편성인데 이러한 보편성은 문화의 교류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단 창조된 문화는 물리적 거리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주위에 확산되는 전파성을 갖고 있다. 전파 결과 발생하는 文化(문화)접촉으로 말미암아 전파 문화와 피전파 문화간에는 결합이나 동화화 같은 문화적 결합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간의 공통요소를 발견했을 때 서로의 상관성이나 근연성을 추적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류나 변천과정을 구명하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복식은 식생활이나 주생활과 함께 문화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예의와 의식을 보여주는 문화현상이며, 동시에 끝없는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 복식은 한민족의 문화를 수용한 역사만큼이나 그에 상응하는 외연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고대 우리 나라는 북방 유라시아 전역의 스키타이계 문화권에 포함되며 북장 역시 胡制(유고제)인 스키타이계 복장이었다. 이는 고대 중국인들이 일컫던 이른바 胡服(호복)이다. 호의 개념은 흉노족에게서 비롯된 후 점차 확대되어 점차 이민족에 대한 범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전한대에는 중국 以西(이서)까지도 西胡(서호)라고 불렀으며 서역복식은 호복으로 불리었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호복은 우리의 기본복식이기도 하였으며, 중국인들도 B.C2-3세기 전국시대에 이르러

趙(조)나라의 武寧王(무령왕)이 호복인 袴褶(고습)을 도입하여 중국복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국, 통일신라복식과 서역복식간이 공통요소를 찾아내어 당시의 한국복식에 대한 계보를 밝힐 수 있으며, 우리 복식문화의 원류나 변천과정을 실제로 보다 접근하여, 세계복식 속에서의 한국복식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서역의 어원과 지역적인 경계를 확인하고,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역 제국과의 교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교역로를 알아보고, 어떠한 문물교류가 있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서역복식과 삼국, 통일신라복식에 대해 연구하여 서역복식과 한국복식의 공통요소를 복식형태와 복식소재별로 알아본다. 연구범위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약 3세기후반부터 10세기초반)로 제한하였으며,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서역복식과 삼국, 통일신라 복식간의 유형, 양식, 소재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요소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출토유물과 고분벽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서역의 지리적 경계와 문물교류로

漢(한)문화권에서는 중국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서역이라고 불렀다. 또한 秦(진)·漢(한)시대까지는 胡(호)라고 하면 주로 흉노나 선비의 북방 기마 민족을 칭했으나, 후한 중기 이후가 되면 호의 명칭은 西方(서방), 西域(서역)의 대명사로 바뀌어, 소그드인, 위구르인, 페르시아인 등의 西胡(서호)를 주로 호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로 胡(호)는 이민족에 대한 범칭으로 사용되었다.

서호라 불리우던 서역제국은 대부분 현재의 동, 서 투르케스탄 지역, 그 중에서도 천산 이남 타림분지의 남북 변경 오아시스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즉 타림 분지의 남쪽 변경에는 미란, 체르첸, 니야, 케리아, 호탄, 아르칸트 등이 분포되어 서역 남도를 이루었고, 타림분지 북쪽변경에는 하미, 고창, 투르판, 카라샤르, 쿠차, 악수, 카슈가르 등의 오아시스가 서역북도의 간선이 되었다. 근대에 와서는 종래의 서역제국들이 부단한 분립과 병합의 복잡한 집산과정을 거쳐 대체로 몇 개의 나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역이란 지역적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다만 하나의 역사적 개념과 용어로서만 학계에서나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체로 중앙 아시아라는 지역적 명칭으로 전래의 서역을 대체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서역의 인종학적 측면을 보면 역사상 이 지역에는 동일한 인종이 거주, 활동하고 있었다. 비록 동서 교류의 발달과 지역주민들의 종횡무진한 이동으로 인종혼잡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시종일관 터키계의 돌궐족이 원주민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한반도에서 멀기만 한 서역제국의 복식이 어떻게 우리복식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은 중국에 전해진 서역복식이 다시 한반도에 전해졌을 것이라는 것과 서역제국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서역은 동서 문화 교류의 연결지, 동서 문물의 집산지로서 동서교류의 대동맥인 실크로드(오아시스)의 중추였다. 따라서 서역과 중국과의 주요 교역로였던 실크로드와 한반도와의 연계관계를 육로와 해로로 나누어 알아보고, 한반도와 서역간에 있었던 교류와 교역의 통로를 발견함으로써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육로는 스텝로와 오아시스로 이루어졌는데, 전체 실크로드의 교통망 중에서 심장부에 위치한 오아시스 육로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대적으로 보면 고대에는 스텝로가 많이 이용되었으나 중세에 이르러서는 오아시스로에 의해 동서교류가 주도되었다. 고대로부터 많은 유목민들이 이용한 스텝로의 서단은 중전에는 대체로 카스피해 연안으로 보았으나 여러 가지 유물이 고증됨에 의하여 지금은 북유럽의 발트해까지 연장시켜서 본다. 한국과 서역을 이어주는 육로

중에서 오아시스로는 기본로이다. 유라시아대륙의 북위 40° 부근에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고비사막(몽골), 타클라칸사막(중국), 키질쿰사막과 키라쿰사막이 잇달아 있고, 서아시아에서 좀 남하하여 루트사막과 카비르사막(이란)이 시리아사막으로 이어져 지중해 동안까지 이른다. 곳곳에 오아시스가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 동서를 이은 길이 바로 오아시스로이다. 해로는 남해로라고 하여 실크로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위치상 스텝로나 오아시스로의 남쪽에 있는 바닷길이라는 데서 유래된 역사적, 지리적 명칭이다. 그 내용과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는데 한 마디로 남해로란 지중해에서 홍해, 아라비아해를 지나 인도양 서태평양에 이르는 광활한 해상에서 동서교류가 이루어진 바닷길이다.

이러한 직접, 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서역 제국으로 수출된 신라의 물품은 비단, 검, 키민카우(Kiminkau), 鹿香(녹향), 盧(노회), 沈香(침향), 馬鞍(마안), 豹皮(표피), 帆布(범포), 磁器(자기), 肉桂(육계), 쿠란잔(Khulanjan), 고라이브, 高良薑(고량강) 등이 있었다. 반면, 삼국과 통일신라가 서역지방으로부터 들여왔던 문물들을 三國史記雜誌(삼국사기잡지)와 출토유물에서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서역계의 인물인 力士(역사)들, '파르티아(Parthia)식 활쏘기' 기법, 서아시아나 그리스 신화의 페가수스를 연상시키는 天馬(천마), 씨름, 五絃(오현, 일명 五絃琵琶), 운산문, 孔雀尾(공작미), 翡翠毛(비취모), 瑟瑟(슬슬), 紫檀(자단), 沈香(침향), 乳香(유향), 毳(구수), 罽(탐등), 海(계), 유리제품, 연화문, 鏤金(누금), 嵌玉(감옥)의 기법 등과 같이 서로간의 교류가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역의 교류 물품을 볼 때 서역과 한반도간의 복식교류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도 문헌이나 유물들을 조사해 보면서 양국간의 복식의 공통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III. 서역제국의 복식

서역제국의 복식에 대해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서쪽의 서투르케스탄과 동쪽의 동투르케스탄으로 나누

어 복식형태를 연구하는데, 서투르케스탄은 중국의 대외교섭과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광의의 서역 개념으로서 페르시아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고, 동투르케스탄은 신위구르자치구에 해당하는 협의의 서역 개념으로서 서역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기 이전의 경계이다.

1. 서투르케스탄의 복식

1) 토하라(吐火羅)의 복식

현재의 Balkh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은 8세기 무렵부터 도하리스탄으로 사료에 알려졌으나, 중국 사료에는 '토하라(吐火羅)'로 표기하고 있다. 이 지역 안에는 많은 민족의 이동이 있었으나 의복의 양식면에서는 페르시아계 복장 양식이라는 한가지로 요약된다. 즉 이부식 의복이지만 북방 기마 민족의 복식은 직령 교임식 카프탄임에 반하여 이 지역의 복식은 튜닉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고대 페르시아계 복식은 양식면에서 3기로 구분된다. 1기는 기원전 6세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있었던 기원전 4세기까지의 Archaemenid

기로서 몸에 잘 맞는 바지와 上衣(상의)양식이 특징이며, 2기는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의 Seleucid기와 AD 3세기까지의 Arsacid기로서 그리스의 영향 때문에 Clock을 많이 착용하고 이전보다 의복의 형태가 넉넉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3기는 AD 3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Sassanid기로서 그리스의 영향이 퇴조하고 1기 양식으로 되돌아가는 특징이 나타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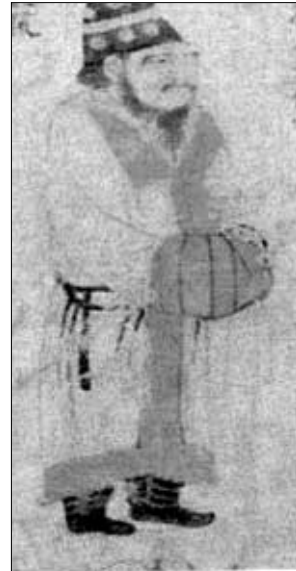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페르시아의 복식을 구체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기는 튜닉과 바지의 2부식 복장에 카프탄형 외피를 걸친 것으로, 전발(剪髮)한 머리에는 Kulah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의 관보를 썼다(그림 1). 2기는 의복은 여유 있고 튜닉 위에는 망토를 둘렀으며 쓰개로는 페르시아 관모인 Kulah 대신 Phrygian bonnet을 썼다(그림 2). 3기의 사산조 페르시아 복장양식도 2기의 복장양식과 동일하지만 드레이퍼리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림 3>을 살펴보면 高頂帽(고정모)를 썼는데 이는 중국에서 渾脫帽(혼탈모)라 하여 유행하던 胡帽(호모)의 시원형이다. 領(령)·袪(거)·수구 등에 緣(연)을 두른 小袖(소수) 長身袍(장신포)를 입었고, 袴(고)는 袍(포)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으며, 靴(화)



<그림 1> 페르세폴리스의 아파디나 (R.W.Ferrier, The Arts of Persia)



<그림 2> 두리에우로포스 출토벽화 (世界の博物館 18 「シリア國立博物館」)



<그림 3> 梁 職貢圖 波斯國使 (世界美術大系, 中國美術)

를 신었다. 이와 같은 페르시아계 복장 양식은 토하라와 그 이전의 에프탈, 쿠산왕조의 복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 속디아나(昭武)의 복식

속디아나란 속드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르다리아강과 아무다리아강 사이에 있는 지역, 특히 속드인의 본거지인 현재의 우즈베크 공화국지역의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자라프산강 유역을 일컫는다.²⁾ 속드인의 복식에 대하여 중국 사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왕은 번발하고 금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纁帽(전모)를 쓰고 白纁(백첩), 羅錦繡(라금수)로 된 의복을 입으며 부인은 纁(계)를 틀어서 黑巾(흑건)으로 덮고 金花(금화)로 장식한다고 하였다. 남자는 錦袍(금포)를 입고 剪髮(전발) 또는 鬣髮(번발)하기도 하였다.³⁾

속드인의 풍속은 본래 페르시아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속드 문화의 보고인 판치켄트에는 벽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 5~8세기로 추정되는 이들 벽화는 당시의 복식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4>를 보면 왕은 금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관모를 썼으며 금으로 緣(연)을 두른 페르시아풍의 붉은색 튜닉을 입었다. 목걸이를 걸쳤고 허리에는 帶(대)를 띠었으며 대에는 길고 가는 검을 매달았다. 그 옆에서 왕을 알현하는 인물들도 왕의 복장과 유사한 튜닉을 착용하였고 전발한 머

리에는 작은 尖頂帽(첨정모)를 썼다.

속디아나의 복식은 본래 페르시아계였으나 돌궐에게 예속된 후로 차츰 그 양상이 달라졌다. 이것은 속디아나 뿐만 아니라 돌궐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 중앙아시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으로, 문헌에 나타나는 돌궐 복식의 특징은 석각이나 석상, 벽화 등에서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다. <그림 5>는 몽고 烏里雅蘇臺(조리아소대) 古碑(고비)에 새겨진 돌궐인상이며, <그림 6> 역시 무도 돌궐 제부족의 주거지에 분포되어 있는 돌궐의 石人(석인)으로서, 이들의 외모는 한결같이 눈이 크고 옆으로 길게 찌져 있으며 코가 길고 수염을 기른 경우에는 팔자 수염을 하였으며 또한 모두 纁(번령)의 포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돌궐에 예속되었던 속디아나의 수도인 사마르칸트의 아프리카시암 궁전 벽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벽화 서벽의 세부 <그림 7>의 신하로 보이는 인물을 살펴보면 의복은 좌임의 카프탄스타일이며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고 단추로 여렸다. 앞, 뒤 길감은 모두 한가지 색이며 수구와 깃에는 바탕감과 다른 천이 사용되었으며 깃은 라펠처럼 삼각형으로 접혀 있다. 허리에 띠 대에는 작은 주머니를 묶어서 늘이고 주머니 아래에는 손수건 같은 것을 늘어뜨렸으며 등쪽으로는 검을 찼다.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하고 화를 신었다. 그림들에 나타난 인물들의 외모는 「舊唐書(구당서)」에 기록된 눈이 깊고 코가 높으며 많은 수염과 구



<그림 4> 판치켄트 神殿址벽화 (世界の大遺跡)



<그림 5> 몽고조리아소대 고비 돌궐인상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



<그림 6> 돌궐의 석인 (大世界的 歷史)



<그림 7> 사마르칸트아프라시암, 궁정벽화모사도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 p.228)

렛나루가 있다는 사마르칸트인의 모습과 부합되지 않는다. 사마르칸트가 돌궐의 지배하에 들게 되면서 돌궐인은 속드인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고 속드의 민족적 구성 자체도 변화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왕에게 봉사하는 신하들이 주로 돌궐인들이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2. 동투르크스탄의 복식 (타림분지의 복식)

1) 서역 남도-호탄(于阗)의 복식

「魏書(위서)」, 西域傳(서역전), 于阗國列(호탄국열)에 의하면 “고창의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눈이 깊고, 코가 높다. 단, 호탄족만이 胡(호)와 같지 않고 중국인 같다.”라고 설명하였다. 호탄인의 외모가 중국인과 비슷한 것은 지역적으로 티벳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동글고 거의 원반형에 가까운 얼굴을 가진 인물상으로 묘사되는 호탄의 회화에서도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호탄의 고대 수도 요트칸 부근에 있는 단단위릭 등의 유적은 호탄의 복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림 8>은 6~7세기경 목판화로서 중국의 공주가 호탄왕에게 시집을 때, 국외 반출이 금지된 蠶種(잠종)을 冠(관)속에 감추어 가지고 왔다는 전설을 그린 것이다. 공주는 몸에 꼭 끼는 좌임의 半袖衣(반수의를)를 입었는데 이는 호탄에서 가장 일반적인 복식양식이며, 공주의 寶冠(보관), 髮形(발형) 등이 중국의 전통양식이 아님을 볼 때 공주가 착용한 반수의 역시 호탄의 복식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공주의 오른편, 팔이 넷인 성인은 튜닉형 반

수의에 고를 착용하였으며 화를 신었다. 이 같은 복식 양식은 호탄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그림 9> 역시 튜닉형의 반수를 착용한 착수의 소매가 긴 옷 위에 입고 통이 좁은 바지를 입고 장화를 신은 모습이다. 호탄의 의복재료에 대해서 현장의 『大唐西域記(대당서역기)』 卷(권) 22 瞿薩旦那國(구살단나국)의 條(조)에 언급된 것이 있는데 <出(구) 細氈 工紡績 紵 … 小腹毛 氈 …; 多衣 紵白(줄구유 세전 공방적시주 … 소복모갈 전구, 다의시유백첩)>이라고 되어 있어 紵(구유), 細氈(세전) 등의 모직물, 紵(시), 紵(주) 등의 견직물과 면직물인 白(백첩)등 다채로운 피복재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서역 북도-쿠차, 투르판의 복식

(1) 쿠차의 복식

쿠차인들은 아리아계 인종이었으며, 벽화에 나타난 인물의 특징에 대해 권영필(1986)은 인물의 안면이 둥근모습이며 길고 납작한 코, 매우 가느다란 입, 둥근 턱으로 토하라인의 용모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쿠차의 풍속에 대하여 「大唐西域記(대당서역기)」에서는 “服飾錦褐(복식금갈), 髮巾帽(전발건모)”라고 하였는데, 전발은 이란인들의 특징으로 쿠차뿐만 아니라 다른 서역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쿠차왕국의 복식을 벽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6세기경의 복식은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변령과 직령이 합성된 것의 형태로서, 이러한 복장은 당대 호인상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쿠차의 특징적인 복장 중의 하나다. 옷의 오른쪽 깃은 변령으로 되어 있는데 길게 늘어져



<그림 8> 단단위릭 출토목판화 蠶種說話圖 (잠종설화도) (중앙아시아 회화)



<그림 9> 단단위릭출토貴人騎乘圖 (중아시아 회화)



<그림 10> 수바시출토 사리용기 (세계의 미술 9, 朝日新聞社)

있는 것 끝을 여미면 반령이 된다. 콧수염을 길렀고 머리는 가운데에 가리마를 하여 좌우로 넘겼고 옷 위에는 환으로 연결된 대를 띄웠고 장검과 단검을 찼다. 쿠차에서 반령을 착용한 모습은 <그림 11>의 양 직공도에 나타난 쿠차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단발이며 한쪽소매가 유난히 길어 보이는 포를 입고 화를 신었다. <그림 12>는 쿠차 여자들의 복장을 알려주고 있는데 튜닉에 고를 착용한 것이 토하라의 여자 복장과 비슷하며, 이 같은 복장양식은 돌궐화 되기 이전인 아리아계 복장 양식이었다고 추측된다. <그림 13>을 보면 남녀 모두 전발한다는 「舊唐書(구당서)」의 기록과 같이 여자도 머리를 잘라 목까지 드리웠고, 상의로 번령과 직령이 합성된 옷을 입고 하의로는裳(상)을 착용하였다. <그림 14>의 복식을 보면 여자는 금관을 쓰고 般領(반령의), 前開形(전개형) 半袖衣(반수의)와 裙(군)을 입고 있다. 반수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착용되었고 다른 서역문물과 함께 중국에 전해졌다고 생각된다.

(2) 투르판(吐魯番)의 복식

① 고창(高昌)의 복식 : 고창의 복식에 대한 사료에서 보면 남자의 복장은 호복이지만 여자는 漢人式(한인식)이다. 하지만 변발하여 늘어뜨린 것은 서역여자의 풍속이라고 하였다. 「南史」, 「梁書」에는 복장에 대한 기록이 더욱 자세하여 남자는 머리를 변발하여 뒤로 늘이고 길이가 긴 소수포에 袴(만당고)를 입으며, 여자는 머리를 변발하지만 뒤로 늘이지 않고 錦

縵(금힐)을 하며 纓絡環釧(영락환천)을 낀다고 하였다. 고창의 복식을 아스타나 고분 출토품을 통해 확인해 보면, 고창 특유의 복합문화가 잘 나타나 있다. 아스타나 고분은 대략 전·중·후기의 3기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전기는 4~5세기에 해당하는 남북조시대고 고창의 전통적인 복장 양식이 나타나 있다. <그림 15>에서 보이듯이 귀족의 복장은 한식이지만 시종드는 사람의 복식은 직령교임의 유를 입고 고를 입은 호식이다. 이는 무용총, 각저총 등의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장과 유사하다. 麴氏(국씨) 고창국 시대의 후기에 해당하는 640년 고창국의 멸망으로부터 8세기후반에 이르는 것이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아스타나 206호묘에서 출토된 俑(옹)으로 <그림 16>은 文官俑(문관옹)으로 籠冠(농관)형태의 흑색 관을 쓰고 여미 양식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반령이라고 추측되는 靑袍(청포)와 白袴(백고)를 입었다. <그림 17>의 武官俑(무관옹)도 마찬가지로 포와 고를 입었으나 색깔이 다르고 쓰개로서 靴(목리)와 같은 적색의 風貌(풍모)를 썼다. 이들의 복장은 전기고분에 보이는 전통적인 복장과는 달리 唐風(당풍)이다. <그림 18>에서는 걸감은 갈색, 안감은 녹색으로 만들어진 포를 착용하고 머리에는 幘(복두)를 썼다. 이 포는 당대에 호복이라 하던 번령포로서 돌궐에게서 비롯된 의복이었다. 번령의 또 다른 형태를 <그림 19>에서 볼 수 있는데 끝이 뾰족한 호모를 썼으며, 안감은 직령, 걸감은 번령으로 처리된 무릎길이의 포를 고 위에 입었다. 장화를 신었으며 한 쪽만 젖혀진 單(단번령)으로 그 방향을 보면 우미이며



<그림 11> 양직공도쿠차국사 (世界美術大系·中國美術)



<그림 12> 키질벽화 76굴樂舞供養과 불전도 (中國美術全集, 新疆石窟壁畫)



<그림 13> 키질발견벽화인물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



<그림 14> 키질69굴의 공양인 (龜茲壁畫綠苗集)

젓혀진 부분을 여미면 반령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직령과 번령이 합성된 형태의 의복은 쿠차의 회화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아스타나 중기 고분 출토물의 여자 복식 역시 남자의 것과 마찬가지로 唐風(당풍)이다. <그림 20>에서는 길이가 긴 縞紋(호문) 長裙(장군)에 치마허리는 鍔(금)으로 된 帶(대)를 했고, 靴(피백)을 돌렸으며, 용모는 한인풍이다. <그림 21>에서는 고개를 맺고, 군을 입고, 유 위에 반비를 덧입었다.

고창의 남자들은 본래 직령의 유와 고의 이부식을 착용하고, 여자의 복장 양식은 다소 漢和(한화)된 것이었으나 唐(당)의 성립 이후 중국의 영향이 짙어져 북

장 양식에 있어서 중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지리적으로 고창은 중국과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서역의 풍속이 고창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유입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호풍이 유행하던 당과 고창과의 복식양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② 위구르(回骨)의 복식 : 위구르의 복식을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남긴 회화를 통해서인데 베제크릭 석굴 벽화에 가장 많이 남아있고, 무르투크 벽화에서도 접할 수 있다. 벽화에 나타난 위구르 복식의 특징은 유목 민족의 잔재와 중국으로부터의 영향



<그림 15> 아스타나전기고분 6호묘출토 지본 회화 (三本正年, 동양복장사논고)



<그림 16> 아스타나206호묘 출토 문관용 (『新疆ウイクル自治區博物館』)



<그림 17> 아스타나206호묘 출토 무관용 (『新疆ウイクル自治區博物館』)



<그림 18> 아스타나206호묘 출토 기체용 (『新疆ウイクル自治區博物館』)



<그림 19> 아스타나206호묘 출토 호인용 (『新疆ウイクル自治區博物館』)



<그림 20> 아스타나206호묘 출토 목용 (『新疆ウイクル自治區博物館』)



<그림 21> 아스타나230호묘 출토 견본회화(『新疆ウイクル自治區博物館』)



〈그림 22〉 베제클릭32굴벽화왕녀상
(권영필, 실크로드 미술, p.44)



〈그림 23〉 쿠히출토마니교경전단편 (국립
중앙박물관, 실크로드의 미술)



〈그림 24〉 쿠히출토돈황사원벽화 (Mario
Bussagli, 『중앙아시아 회화』)

및 페르시아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 길게 기른 머리 카락을 몇가닥으로 나누어 뿔은 돌궐의 풍습인 被髮(피발)의 머리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의복으로는 唐(당)에서 착용하던 缺·衫(결과삼)의 양식과 흡사한 袍(포)를 착용하였다. 포 위에는 帶(대)를 띠고, 대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달았으며 長·靴(장요화)를 신어서 유목민족의 풍습을 그대로 간직하였다. 대에 물건을 매달아 늘이는 풍습은 繫·帶(접섭대)라 하여 중국에 전해졌고 위구르가 세력을 넓히기 전부터 중국의 문무 관리의 복식에 도입되었다. 여자들의 의복에는 위구르 고유의 특징이 짙게 남아 있는데 '아름다운 왕녀의 초상화'라는 제목의 〈그림 22〉에 보이는 포는 발을 덮을 만큼 길지만 擘·窄·袖·形(견신착수형)이고 깃은 번령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번령의 깃은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그림 23〉은 전형적인 위구르 복장을 한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위구르의 특징인 반령포를 착용하였다. 9세기말로 추정되는 쿠히 출토의 돈황 사원벽화 〈그림 24〉를 보면 여러 가지 복장양식이 보이는데 아리아계의 인물로 보이는 사제는 반령포 형태의 긴 袍(포)를 입고 그 위에 솔 형태인 聖衣(성의)를 걸쳤다.

IV.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복식

1. 삼국시대의 복식

삼국시대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활동하던 시

기를 말하는데, 각 나라 복식은 각지의 특색이 있을 것이나 고기록이나 고분벽화, 고분 출토품 등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삼국이 대부분 공통된 양식을 하고 있다. 즉 삼국시대는 북방 유목민족의 복식문화의 바탕 위에 중국문화의 영향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여러 국가들이 서로 연관되어 독특한 복식 문화를 형성하여 우리 복식의 기본 구조를 이루었다.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시대는 唐(당)의 힘을 빌어 통일을 하였고 광대한 판도를 통치하기 위하여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제반제도를 단행했으며 중앙집권적 체제를 완성하였다. 문화면에서도 그들 고유의 문화를 잘 보존하면서도, 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빈번한 遣唐使(견당사), 求法僧(구법승), 留學生(유학생) 등의 교류로 唐(당)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 당시 당의 문화는 국제적 양상을 띠고 있었고, 복장양식도 서역의 복식을 수용한 호복이 유행하였으며, 신라에서 받아들인 당의 복식 역시 서역복식인 五服(오복)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648년 김춘추는 당에 청병하러 가서 唐太宗(당태종)에게 章服(장복)의 개혁을 청하여 경국의 제에 따르고자 하여 의대를 사여하고 이를 허하였다. 그리고 그 5년 후인 진덕여왕 7년(653)에는 신라에 율령체제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김춘추가 즉위하여 무열왕이 되어, 점진적으로 당, 신라의 연합체제가 강화되게 된다. 661년 무문왕이 즉위하고, 그 3년 후, 신라 궁정부인의 관복도 唐式(당식)으로 바뀌었다. 중국복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변모한 한국 복식의 양상은 흥덕왕 복식금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흥덕왕 복식금제에는 唐代(당대)에 호복으로 착용했던 의복이 중국 복제와 더불어 도입되

있음을 알 수 있는 복식이 포함되어있다.

1) 고구려 복식

(1) 상의(𠂇(유), 長(장유), 袍(포))

𠂇(유)는 저고리에 해당하는 말로 고구려 관계 고기록에 유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대수삼', '황삼', '삼통수', '갈의' 등이 있는데 여기서 대수, 통수는 소매통을 말한다. 전형적인 호복인 유는 원래 죄임이며 소매통이 좁은 착수였으나 중국복식의 영향으로 우임의 소매통이 넓은 광수로 변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분벽화에 나타난 유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개 교임형에 길이는 엉덩이를 가릴 만큼 길며, 허리에 띠를 두르고 깃, 섹, 수구, 단에 선이 가해져 있다. 소매의 모양은 소매통이 좁은 통수와 소매통이 넓고 긴 대수로 나뉜다. 𠂇의 형태는 <그림 25>에서처럼 직령이 주로 보이지만 <그림 26>에서와 같은 반령의 모습도 보인다. 長(장유)는 유에서 길지만 길어진 형태로 袍(포)류에 속한다. 이 같은 장유 착용 모습은 <그림 27>에서 볼 수 있는데 중국식의 포와는 달리 길이도 속에 입은 바지와 치마가 보이도록 길지 않고 폭도 그리 넓지 않아 우리의 유의 형태가 길지만 길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포는 길이가 긴 外衣(외의)로 고구려 관계 고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고분 벽화에 포를 착용한 인물들이 있어 그 존재를 알리고 있다.

(2) 하의(袴(고), 裳(상), 裙(군))

고구려의 고에 대한 고기록으로는 「北史(북사)」에 '太口袴(태구고)', 「隋書(수서)」에는 '大口袴(대구고)', 「南齊書(남제서)」에서는 '窮袴(궁고)', 「新唐書(신당서)」의 '袴大口(고대구)' 등이 있다. 고분벽화에 나타나 있는 고의 착용 모습으로 종류를 나누어 보면 대략 4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세고는 바지통이 좁은 형태로, 기마에 편리한 복장이다. 이 같은 세고 착용 모습은 무용총 벽화에 나타나 있고 스키타이계 인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둘째로 궁고는 기마시 밑이 터지지 않게 당을 부착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궁고로 지칭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호복이 채용되기 이전에도 바지는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앞뒤가 터진 개당고였다고 한다. 이 같은 궁고 착용모습은 <그림 28>에서 뒤가 비죽 나와있는 당 부착양식을 볼 수 있으며, 스키타이계에 속하는 흉노 노안-우라 출토바지(그림 29)에서 당 부착양식을 볼 수 있어 이 같은 궁고의 형태도 원류는 스키타이계 복장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통이 넓은 바지를 관고라 말하는데 '대구고'란 명칭이 있다. 이에 대해 「隋書(수서)」禮義志(예의지)에 '紫衫大口袴褶(자삼대구고습)'이라 했으며 왕국유는 「胡服袴(호복고)」에서 「舊唐書(구당서)」에 있는 '緋褶大口袴(비습대구고)」란 말을 인용하여 대구고가 고습제의 하의라고 보았는데 페르시아계의 일자형의 폭넓은 바지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25> 무용총벽화 (김원용, 한국미술전집4)



<그림 26> 수산리벽화 (김원용, 한국미술전집4)



<그림 27> 무용총벽화 (김원용, 한국미술전집4)

넷째로 짧은 바지를 들 수 있다.裳(상)에 대한 고기록은 「北史(북사) 列傳(열전) 高麗條(고려조)에 부인의 유와 군에 가선했다는 기록이 있다. 상은 주로 여인들이 착용하던 치마를 말하는 것으로 군은 상보다 폭을 더해 미화시킨 것이다. 고분벽화에 나타나 있는 치마의 형태는 보통 허리에서 도련에 이르기까지 잔주름이 잡혀 있고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것과 길이가 짧고 폭이 좀 더 좁은 것이 보이는데 <그림 30>은 군의 모습, <그림 27>은 상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치마의 양식 중 특이한 것은 <그림 31>에 나타나고 있는 색동치마로, 이와 같은 양식이 당 이현묘 벽화나 일본 다카마스츨 벽화, 서역의 투르판 지역이었던 아스타나 졸토의 삼채용<그림 20>에도 색동치마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모든 지역에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백제복식

(1) 상의(의(유), 長(장유), 袍(포))

상의인 유와 같은 형태에 대한 것은 주로 復衫(복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유의 일반적인 형태와 비슷한 모양일 것이다. 장유는 '袍(포)' 류에 속하고 유와 포의 중간 길이로 보이는데, <그림 32>에 보이는 형태가 중국식의 포의 형태가 아닌 우리의 장유 형태로 생각된다. 포에 대한 기록은 「舊唐書(구당서) 百濟條(백제조)에 '왕은 대수자포를

착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에서도 포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고, 그 형태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소매가 큰 중국식 포였음을 알 수 있다.

(2) 하의(袴(고), 裳(상), 裙(군))

백제의 바지에 대한 기록은 왕의 것으로 청금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통이 넓은 푸른색 금직의 화려한 바지라고 볼 수 있다. 또, <그림 32>에 묘사된 5세 기경의 백제 국사도를 보면 통이 넓고 밑단에 선을 두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관고 착용방식인 밑단을 즐라매는 방식과는 달리 그냥 풀어놓았다. 한편 「梁書(양서)」에 나오는 '袴曰(고왈곤)'이라는 말에서 고를 곤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고, 오늘날의 잠방이와 같이 가랑이가 짧은 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치마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복장이 고구려와 같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여인들은 상을 착용했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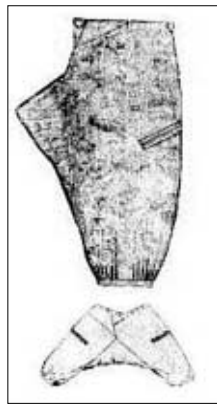
3) 신라 복식

(1) 상의(의(유), 長(장유), 袍(포))

의(유)를 '尉解(위해)'라고 불렀다 하는데, <그림 33>과 <그림 34>에서 대략의 유의 착용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인물도 등에서 보이는 유의 형태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장유에 대한 고기록은 「唐書(당서) 東夷傳(동이전) 新羅



<그림 28> 무용총벽화 춤추는 인물 (전호태, 고분벽화로 보는 고구려 이야기)



<그림 29> 노인우라 출토 모재궁고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 문화사, p.12)



<그림 30> 쌍영총 동벽 인물 행렬도 (김원용, 한국미술전집4)



<그림 31> 수산리벽화 색동치마 (김원용, 한국미술전집4)

條(신라조)에 “부녀자는 장유를 착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복은 대개 고구려, 백제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고신라에서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형태의 장유를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하의(袴(고),裳(상), 裙(군))

「唐書(당서) 東夷傳(동이전) 新羅條(신라조)에는 “남자는 갈고를 착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고의 착용사실을 나타내 준다. <그림 33>에서는 비교적 폭이 좁은 세고를 착용한 모습이 보이며, <그림 34>에서는 통이 넓은 관고의 착용모습이 보인다. 「三國史記(삼국사기) 文武王條(문무왕조)에 나오는 “錦裙(금군)을 주고 꿈을 샀다.”라는 문명왕후 설화는 고신라에서 비단치마가 착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림 35>에도 세로 주름을 한 치마의 모습이 있어 여인네들이 치마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통일신라시대의 복식

민족통일 후 태평성대가 계속되어 모든 문화는 난숙기에 들어섰고, 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여 갔다. 당시 당의 문화는 국제적 양상을 띠고 있었고, 복장 양식도 서북 이민족의 복식을 수용한 胡風(호풍)이 유행하였으며, 통일신라에서 받아들인 당의

복식도 서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당시의 양상은 흥덕왕 복식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복식금제에는 당대에 호풍으로 착용하였던 복식이 중국복식과 더불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 복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시대의 복식제도의 전모를 알 수 있게 된 좋은 자료라 하겠다. 이렇듯 우리의 복식제도는 고유 복식과 중국 복식의 이중구조를 갖게된다. 삼국사기 잡지 색복조에 특히 진골여인의 관모에서 슬슬전을 금한다라는 것과 5두품여에서 공작미, 비취모 등은 금한다고 되어있다. 슬슬의 주산지는 러시아, 타슈켄트이며 石(석)의 보석으로 추측되며⁴⁾ 또는 녹송석(turgolse)이라 하며 진한 청색으로 인류가 가장 일찍 사용한 보석중의 하나로 이집트, 페르시아, 중국, 잉카 등 고대 문명지에서 사용이 흔적이 모두 발견된 것이다.⁵⁾ 공작미는 인도, 동남아 일대 중국남부에서 서식하는 공작의 뿌리부분, 비취모는 비취조(King Fisher's Feathers)의 털로 캄보디아가 주산지이며 털의 색깔도 취색으로 모직처럼 꼬아 짠것으로 복식소재로서의 사용이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⁶⁾

(1) 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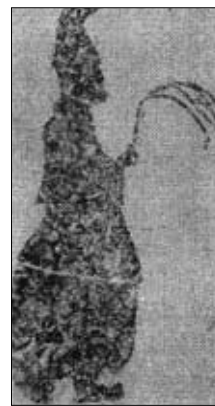
① 表衣(표의) : 표의는 가장 겉에 입는 옷으로 <그림 36>와 같은 단령포 형태가 대부분인데 당 이현묘의 신라 사신<그림 37>을 보면 우리 고유의 장유 형태도



<그림 32> 양직공도백제국 (중국낙양문물명품전, p.247)



<그림 33> 경주황남동출토 부상도우 (한국미술전집)



<그림 34> 경주단석산 인물암 공양상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p.58)



<그림 35> 경주황남동출토 부상도우 (한국미술전집)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신라 사신을 보면 중국의 관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광수포의 깃은 깊게 앞을 감싼 광폭이고, 수구에 선은 없으며, 길이는 무릎길이고, 그 아래는 대구고를 입고, 발에는 혁리를 신고 있다. 귀족층은 관복으로는 중국제 단령포를 착용했지만, 편복으로는 평민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인 포를 남, 여 모두 착용하였다. 그러나 골품계급에는 활수형, 평민계급에는 착수형을 입으며 색상과 과대의 재료, 과수를 통해 신분을 엄격히 표시했다.

② 短衣(단의) : 단의는 저고리 즉 유라고 할 것이며, 신라에서는 이를 위해라 하였다. 그런데 흥덕왕 복식금제의 단의조에는 6, 5, 4두품 여자들에 대한 계라에 대한 금제가 보일 뿐 남자에 대한 것은 없으니 이는 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것 같으며 여자에게만 입혀졌으리라 여겨지고, 남녀가 같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는 내의가 있어 이것이 유에 해당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때 이미 여자의 저고리가 짧아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렇게 볼 때 단의는 유에 속하나 치마를 유 위에 입게 되면서 유의 길이가 다소 짧아져 단의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內衣(내의), 𑖦:𑖫:(요반) : 내의는 어쩌면 표의에 대응하는 것으로 포에 대한 유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남녀가 같이 관계되는 것으로 표의나 단의 속에 입는 속옷으로 보이며, 금제에 나타난 의료로 보아, 내의의 형태는 알 수 없

지만 5, 4두품은 소문릉, 6두품 이상은 계, 수, 금, 리를 금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보아 당시 복식의 사치 정도를 짐작 할 수 있다. 요반은 치마하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단의 위에 입은 상의 허리로서 겹으로 드러나므로 매우 좋은 비단을 썼을 것이다.

④ 半臂(반비), 裱:𑖫(배당), 𑖦(표) : 반비는 원래 서역지역인 타림분지에서 급격한 일교차로 방한을 위해 착용된 반소매의 저고리로 당에서도 실용성 외에도 장식의 목적으로 착용된 것으로 남녀공용이며 오늘날의 배자와 같다. 신라시대의 반비 형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당과 일본의 출토유물을 참조하여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소매길이는 반소매로 골품 계급만이 착용할 수 있었다. 배당은 소매가 없는 조끼형의 옷으로 짐작되며 6, 5, 4두품녀에게만 관련이 있어 여인 전용의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진골녀에게는 제한이 없었으나 그 이하에는 제한이 있었고 평민녀에게는 착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표는 당의 披帛(피박)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인들이 목 뒤에서 가슴 앞으로 길게 드리우던 일종의 목도리였다. 표는 서민녀에게는 금지되어 있으며 진골녀에서 4두품녀에 이르는 귀족층의 여인들에게만 허용되어 있었다. 흥덕왕 복식금제에 기록된 표의 금지된 소재들을 살펴보면 6두품여에서 금은사, 공작미, 비취모의 사용을 하지만 계수의 사용을 금한 것으로 보아 얼마나 화려한지를 알 수 있다. 용강동 출토 인물토용 여인상에서 표를 두르고 있



〈그림 36〉 경주 용강동석실고분출토 문관상 (이난영, 토우, p.47)



〈그림 37〉 당 이현묘신라사절 (유희경, 김누자, 한국복식문화사, p.84)



〈그림 38〉 경주 용강동석실고분 출토 여자상 (이난영, 토우, p.49)

는 모습이 보인다(그림 38).

(2) 하의(袴(고),裳(상))

신라에서는 고를 가반이라 칭하였고 복식금제에 남녀 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였던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착고의 풍습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바지의 모양은 바지통이 넓은 관고와 통이 좁은 세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급에 따라 옷감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서민의 노동복은 길이가 짧고 바지통이 좁은 쇠굽잠방이형의 바지가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마의 모양은 치마허리와 끈, 그리고 치마의 부분으로 구성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삼국시대와 같았다. 종류는 표상, 내상이 있었는데 표상은 곁에 입는 치마로 치마허리가 있고 삼국시대 치마와는 달리 주름이 치마단까지 잡히지 않고 위에만 잡혀 있었다. 내상은 속치마였기보다는 의례적인 용도로 상을 두 개 입을 때 속에 입었기 때문에 내상이라 했다. 그것은 흥덕왕 복식금제에 진골녀의 표상이나 내상은 금제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어떤 화려한 옷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대 여성들의 치마는 매우 화려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길이가 땅에 끌릴 정도였음을 (그림 38)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V. 서역복식과 삼국, 통일신라 복식간의 공통성

1. 복식형태의 공통요소

1) 직령교임의 복식

우리의 고유복식인 직령교임은 서역에서도 보이는데 아스타나 전기고분 6호묘인 紙本繪畫(지본회화)에 보이는 시종드는 사람과 악사들의 복장은 고구려 벽화(그림 25)에 나오는 사람들의 복장과 거의 흡사하다.

2) 盤領衣(반령의)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귀족층에서 주로 입었던 반령의는 남북조 시대에 鮮卑(선비)에게서 비롯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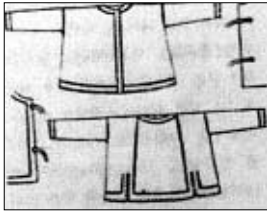
것으로서 중국에서는 漢式(한대)의 복두와 결합하여 상복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다. 가축과 함께 水草(수초)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이 바람과 모래 먼지를 막기 위해 앞을 막은 것으로 평상시에는 깃을 열어제친 반령으로 입었다. 삼국, 통일신라시대에 반령의 착용모습을 찾아보면 고구려 수산리 벽화의 1(책)을 쓰고 있는 남자와 통일신라의 용강동과 황성동 출토용에 보인다. 서역에서의 반령의 착용모습은 많이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은 파지리크 2호묘에서 출토된 남성용 상의(그림 39)와 베제클릭 석굴벽화의 위구르 왕자상, 양 직공도의 쿠차국사를 예로 들 수 있다.

3) 袴(고)

삼국, 통일신라와 서역에 전통적인 복장으로 형태는 세고, 궁고, 관고 등으로 나뉘는데, 먼저 세고의 착용모습을 보면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 중 상차림의 칼을 들고 시종을 드는 인물이 입고 있는 모습(그림 40)과 오르도스 출토의 씨름장면 청동 장신구(그림 41)와 키질 서굴 벽화 8호묘의 공양자(그림 42)가 입고 있는 바지의 형태가 비슷하다. 궁고의 착용모습은 무용총 벽화의 조우관을 쓴 춤추는 남자와 여인의 모습에 엉덩이 뒤가 삐죽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서역은 노인-우라 출토의 모제 궁고를 들 수 있다. 관고의 착용모습은 양 직공도의 백제 국사(그림 32)와 장천 1호분의 오현금 연주와 독무, 서역에서는 베그람 유적에서 발견된 쿠산 왕조의 부조에 보이는 공양자들(그림 55)과 두라에우로포스 출토벽화, 마트라스 신전의 성자상(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4) 半臂(반비), 褙子(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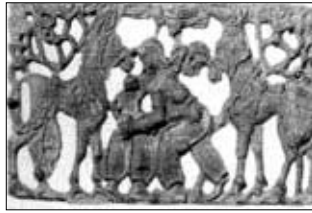
반비, 배당 등으로 기록된 반비는 중국에서는 半袖(반수), 背子(배자)라고도 했는데, 배자는 중국 고유의 복제가 아니라 쿠차, 호탄 등 서역의 복식이 중국으로 넘어왔고, 다시 우리 나라로 전해졌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흥덕왕 복식 금제에 의하면 반비는 남녀 공용이며, 배당은 여자의 전용물로 기록되어 있고, 통일신라 때의 반비 착용 유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서역에서 반비 착용 유물을 살펴보면 아스타나 출토 견병풍화



〈그림 39〉 파지리크 2호묘 출토 남자용 상의 (三本正年, 도양복장사논고, p.446)



〈그림 40〉 무용총상차림 (김원용, 한국미술전집4)



〈그림 41〉 오로도스출토 씨름장면 청동장신구 (권영필, 실크로드 미술, p.156)



〈그림 42〉 베그람유적 암석 부조 공양자 (三本正年, 도양복장사논고, p.419)

의 피백을 걸친 仕女(사녀)와 단단위릭 출토의 목판화인 鬻鐘說話圖(잠종설화도)가 있다.

5) 表(표)

중국에서 披帛(피백), 子(피자) 등으로 부르던 통일신라시대의 표 역시 서방에서 발생한 솔이 문화교류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까지 이르러 유행했던 것이라 하겠다. 衫本正年(삼본정년)(1995)에 의하면 표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지중해식 복장에서 유래되었고, 그리스 미술이 간다라 등 불교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서역을 통해 4세기대의 중국에 그 여파를 미쳤다고 했다. 표를 두른 모습을 유물에서 찾아보면 용강동 출토의 여인용(그림 38)과 아스타나 출토의 高·(고계)에 披帛(피백)을 두른 여인용(그림 20)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양식의 옷을 입고 피백을 두르고 있다.

6) 加線法(가선법)

옷의 깃, 섶, 도련, 소매 끝에 다른 색의 천으로 선을 두르는 가선법은 고대로부터 한국복식과 서역복식에 널리 쓰여졌다. 선은 옷의 가장자리를 접어 경사의 풀림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일단 발생한 후에는 이러한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 색이나 문양을 조화시켜 일종의 수식적 의의까지를 추구하게 되었다. 무용총 벽화의 유고착용 여인상(그림 25)이나 당 이현묘의 신라사신(그림 37)과 서역 키질 석굴벽화 중 전발한 여인(그림 13), 수바시 출토의

사리용기(그림 10)에서 가선의 형태를 볼 수 있다.

2 복식소재의 공통 요소

1) 絨(계)

계는 흉덕왕 복식금제에 자주 언급이 되는데 고급 모직물로 「說文(설문)」에 의하면, 주산지는 서역이고 모직물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三國志(삼국지)大秦國(대진국): (로마에서 五色 絨(오색계)가 생산된다고 했다. 계의 종류로는 毛(방)과 彩(채계)의 두 종류가 있다. 「通俗文(통속문)」에서는 斜紋(사문)으로 짜여진 것을 방이라 했고 다양한 문양조직을 가진 것을 계라고 했는데 계는 방에 비해 문양과 색채가 다양한 것으로 더 고질의 모직의료라고 하였다. 이러한 고급의 모직의료가 통일신라의 귀족층의 사치스런 생활에 걸맞는 기호품이었기는 하나 멀리 서역일원으로부터 수입해오는 한정된 물량으로서 날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으므로 흉덕왕대에 그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다.

2) 孔雀尾(공작미)와 翡翠毛(비취모)

흉덕왕 복식금제에 보이는 물품으로 공작미는 인도, 동남아 일대와 중국의 남부에도 분포 서식하는 공작의 꼬리부분으로 날개의 색이 5색이므로 오행설과 관련시켜 길조라고 생각하였다. 비취모는 비취조(Kingfisher's Feathers)의 털을 말한다. 주산지는 캄보디아고 털의 색깔은 취색으로 진귀하여 극히 사치한 상품은 모직갈

이 꼬아서 짚것이였다. 중국 송대에서도 이 “翠毛(취모) 박이 비단”이 착용을 금하고있었던 것을 보면 이 대에도 최고의 사치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瑟瑟(슬슬)

슬슬에 대하여 「三國史記(삼국사기)」에는 다만 진골 여인의 빛이나 관, 또는 육두품녀의 빛에 瑟瑟鈿(슬슬전)을 금한다라는 금제가 있을 뿐 다른 설명은 없다. 진골녀의 빛과 관에 슬슬박이를 금하였다고 하면 그리 흔한 물품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많은 중국측 자료를 정리해 보면 주산지는 러시아의 타슈켄트이며 碧石(벽석)의 보석으로 추측된다. 중세 동서교역의 총아인 회 회골 상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거래한 중요 상품에 이 슬슬이 빠지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 보석에 대한 금령이 내려진 흥덕왕 9년(834)경에는 신라 민족도 漢(한)민족에 못지 않은 소유욕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VI. 결론

본 연구는 삼국시대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복식을 같은 시대의 서역복식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로간의 공통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복식형태의 공통요소로는, 첫째, 우리의 고유복식인 직령 교입의 복식이 서역제국의 고창에서도 보인다. 둘째, 삼국 시대나 통일신라시대의 귀족층에서 주로 입었던 반령의는 남북조 시대에 鮮卑(선비)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에서는 漢式(한식)의 복두와 결합하여 상복의 양식이 되었던 것으로, 가축과 함께 水草(수초)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이 바람과 모래 먼지를 막기 위해 앞을 막은 것으로 평상시에는 것을 열어 제친 𠄎(번령)으로 입었다. 셋째, 袴(고)는 삼국, 통일신라와 서역의 전통적인 복장으로 형태는 細袴(세고), 窮袴(궁고), 寬袴(관고) 등의 형태로 나뉜다. 넷째, 半臂(반비), 褙(배당) 등으로 기록된 반수의를 중국에서는 半袖(반수), 背子(배자)라고도 했는데, 배자는 중국 고유의 복제가 아니라, 쿠차, 호탄 등 서역의 복식이 중국으로 넘어왔고, 다시 우리나라로 전해졌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다섯째, 중국에서 披帛(피백), 𠄎(피자) 등으로 부르던 통일신라 시대의 𠄎(표) 역시 서방에서 유래된 솔이 문화교류 과정에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르러 유행했던 것이라 하겠다. 표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지중해식 복장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리스 미술이 간다라 등 불교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서역을 통해 4세기 때의 중국에 그 여파를 미쳤다. 여섯째, 옷의 깃, 셔, 도련, 수구에 다른 색의 천으로 선을 두르는 가선법은 고대로부터 한국 복식과 서역복식에 널리 쓰여졌다.

복식소재의 공통요소로는, 첫째, 𠄎(계)는 흥덕왕 복식금제에 자주 언급이 되는데 고급 모직물로서, 주산지는 서역이며 모직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급의 모직의료가 통일신라의 귀족층의 사치스런 생활에 걸맞는 기호품이었기는 하나 멀리 서역일원으로부터 수입해오는 한정된 물량으로서 날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으므로 흥덕왕대에 그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孔雀尾(공작미)와 翡翠毛(비취모)도 서역제국에서 들어온 물품중의 하나였다. 셋째, 瑟瑟(슬슬)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자료는「삼국사기」에 금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날 뿐 다른 설명은 없지만, 주산지는 러시아의 타슈켄트이며 벽석의 보석으로 추측된다. 중세 동서교역의 총아인 회 회골 상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거래한 중요상품에 슬슬이 빠지지 않았다.

이상 삼국, 통일신라복식과 서역복식간의 공통성에 대해 알아본 것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 복식의 교류는 중국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의 다원적인 교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삼국, 통일신라 복식과 서역 복식간에 공통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두 복식은 서로 다른 독자성과 고유성도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틀림이 없다. 이러한 독자성과 고유성을 각국의 고유한 전통적인 복식을 가능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선조들은 외래적인 복식 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방식대로 변형하여 새롭게 창조해 내는 독창성을 보이고 있다. 外界(외계) 복식과 여러 가지 공통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고유 복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독자성과 고유성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1) Marry G. Houston 「Ancient Egyptain Mesopotamia and Persian Costume」 (A&C Black)
- 2) 羽田明 「世界の 歴史 10 西域」(河出書房新社, 1969, p. 175)
- 3) 「舊唐書(구당서)」 卷198 列傳) 148下 西域傳康國條
- 4) 「구당서」 권 104 고선지선
- 5) 이용범, 「삼국사기에 보이는 이슬람 상인의 무역품」, 이홍직 박사, 회갑기념한국논총
- 6) 김문경, 「7-9세기 신라인 해외무역 활동」, 한국복식, 제12호, 1994, 5.
- 7) 舊唐書
- 8) 南史
- 9) 大唐西域記
- 10) 本草綱目 卷34
- 11) 北史
- 12) 史記
- 13) 三國史記
- 14) 新唐書
- 15) 梁書
- 16) 前漢書
- 17) 周書
- 18) 국립중앙박물관 編, 中央 아시아 美術, 삼화출판사, 1986.
- 19) 권영필, 실�크로드, 열화당, 1997.
- 20) 김문경, 7~9C 신라인 해외무역활동, 한국복식, 제12호, 1994.
- 21)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민족문화사, 1994.
- 22) 김미자, 치마 저고리의 차림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10차 추계논문발표회, 1988.
- 23) 김소현, 당시대의 호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24) 김용문, 당대의 복식연구 복식 문화, 한복문화학회지, 2(1), 1999.
- 25) _____, 쿠차의 복식, 복식, 제24호, 1995.
- 26) _____, 한국미술전집, 동화출판사, 1980.
- 27) 무함마드 깐수, 신라·서역 교류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2.
- 28) 衫本正年 著, 문광희 譯, 동양복장사논고, 경춘사, 1995.